



‘학교폭력·비밀결혼’ 등 각종 의혹과 논란이 휩싸인 배구 선수 이재영(왼쪽), 이다영이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그리스 테살로니키로 출국하고 있다. /노컷뉴스

결국 사과 없이...이재영-이다영 그리스행

V-리그 최고 스타에서 학폭 논란으로 한순간 추락 국제배구연맹 통해 ITC 발급 받아 그리스로 이적

학교 폭력 논란으로 프로배구에서 배제된 이재영-이다영(25) 쌍둥이 자매가 그리스 리그에서 뛰기 위해 출국했다. 이재영, 이다영은 16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터키로 출국했다. 터키를 경유한 뒤 그리스로 향하는 일정이다. 이들이 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출국을 정확히 2시간 앞둔 오후 9시45분이었다. 어머니 김경희씨와 함께 출국장에 나타난 두 선수는 재빨리 수속을 마친 채 비행기 탑승을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가족으로 보이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짐을 옮겨주며 끝까지 함께 했다. 두 선수는 취재진의 질문에 철저히 함구했다. "그리스로 나가기 된 소감이 어떤가."

사과의 말을 할 의향이 있느냐'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재영만이 "한마디만 해달라"는 요청에 짧막하게 "(답변을 해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V-리그 최고 스타였던 두 선수의 인생은 지난 2월 불거진 학교 폭력으로 180도 바뀌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창 시절 친구들을 괴롭혔던 내용들이 날날이 공개되면서 한순간에 추락했다. 이재영과 이다영은 자필 사과문을 게재해 용서를 구했고, 소속팀 흥국생명엔 무기한 출전 징지 처분을 내렸다. 두 선수는 시즌 내 복귀하지 못했고, 우승이 확실해 보였던 흥국생명은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을

모두 2위로 마쳤다. 재기를 기대했던 두 선수에게 또 하나의 나쁜 뉴스가 날아들었다. 흥국생명이 여론의 악화를 의식해 2021~2022시즌 출전에 필요한 선수 등록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설 곳을 잃은 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사실상 해외진출 뿐이었다. 이재영과 이다영은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리그행을 타진했다. 그 결과 그리스리그 소속 PAOK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재영과 이다영은 대한배구협회가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국제배구연맹(FIVB)이 직권으로 승인해 이적이 최종 확정됐다. 여러 풍파를 거쳐 그리스로 향한 이재영과 이다영은 그리스 도착 후 메디컬테스트를 마친 뒤 큰 이상이 없다면 곧장 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노컷뉴스

이정민, 5년 7개월 만에 우승...통산 9승 달성

이정민(29)이 2021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 마지막 날 버디 10개를 잡는 몰아치기로 역전 우승을 거뒀다. 선두에서 출발한 박민지(23)는 6번 홀(파5) 더블보기로 무너져 손에 닿을 듯했던 시즌 7승을 놓쳤다. 이정민은 17일 익산 컨트리클럽(파

72-6569야드)에서 열린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10개와 보기 1개를 묶어 19점을 획득했다. 3라운드까지 32점을 획득해 8위에 있던 이정민은 이날 적극적으로 버디를 잡으며 순위를 끌어올렸고, 결국 컷오프를 통과한 64명 중 최종 점수에서 유일하게 50점을 들

과한 51점을 기록하고 우승했다. 이정민의 우승은 2016년 3월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 이후 5년 7개월 만이다. 2010년 KLPGA 투어에 데뷔해 올해로 12년차인 이정민은 이제 투어 통산 9승을 달성했다. 이정민은 우승을 확정된 뒤 "그동안 골프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상처를 받을 일이 많을 것이다. 이번 우승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여자 축구대표팀, 2022년 FIFA U-20 월드컵 출전 확정

우리나라가 2022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여자 월드컵에 출전한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지난 14일 열린 여자축구위원회 화상회의에서 2019년 AFC U-19, U-16 여자 챔피언십을 각각 2022년 FIFA U-20, U-17 여자 월드컵의 예선 대회로 인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내년에 열릴 AFC U-20 여자 아시안컵, U-17 여자 아시안컵이 취소됐고 이에 2019년 AFC U-19 여자 챔피언십 3위를 기록한 한국은 출전권을 얻게 됐다. 2022년 FIFA U-20 여자 월드컵은 8월 10일 코스타리카에서, U-17 여자 월드컵은 10월 11일 인도에서 개최된다. /노컷뉴스



한국은 FIFA U-17 여자 월드컵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다. /노컷뉴스

현대건설 야스민, V리그 데뷔전서 트리플크라운

현대건설이 IBK기업은행을 제압하고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현대건설은 17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1-2022 V-리그' 여자부 기업은행과의 경기에서 3-1(23-25 25-15 25-16 25-17)로 역전승을 거뒀다. 홈 개막전에 나선 현대건설은 외국인 선수 야스민의 활약을 앞세워 기본 좋은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날 야스민은 블로킹득점 4개, 서브에이스 3개, 후위득점 12개를 기록해 데뷔 첫 경기에서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했다. 야스민은 43점을 올려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다. 공격성공률도 54.54%로 높았다. 양효진과 이다현도 각각 9점을 올려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기업은행은 라센(16점)과 김수지(9점)를 앞세워 승리를 노렸지만, 현대건설에 비해 공격력이 크게 떨어졌다. 기업은행은 공격성공률에서 10% 이상 차이가 났고, 블로킹에서도 4-12로 열세를 보였다. 1세트를 아쉽게 내준 현대건설은 2세트에서 야스민을 필두로 파상공세를 펼쳤다. 야스민은 2세트에서만 11점을 올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노컷뉴스



현대건설은 승부의 분수령인 3세트 9-8로 앞선 상황에서 양효진의 오픈공격과 김다인의 서브에이스, 야스민의 블로킹으로 3연속 득점에 성공했다. 이후 17-13에서 이다현의 속공과 야스민의 백어택으로 상대의 추격을 뿌리쳤다. 승기를 잡은 현대건설은 4세트에서 중반에 경기의 흐름을 가져왔다. 야스민의 활약을 앞세워 16-13으로 리드를 잡았고, 이다현의 이동공격 등으로 5연속 득점을 올려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노컷뉴스

보스턴, PS 최초 1-2회 연속 만루포...시리즈 원점으로

보스턴 레드삭스가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의 새 역사를 썼다. 보스턴은 17일(한국시간) 미국 휴스턴 마네타이드파크에서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상대한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 2차전에서 1회와 2회에 연이어 만루홈런을 쏘아올렸다. 1회초 2사 만루에서 베테랑 거포 J.D. 마르티네스가 휴스턴 선발 루이스 가르시아의 빠른 공을 잘 밀어쳐 오른쪽 담장을 넘겼다. 2회초 1사 만루에서는 라파엘 데베스가 제이크 오드리치의 커터를 잡아당겨 우월 만루홈런으로 연결했다. 미국 스포츠전문 케이블 채널 ESPN의 기록 정보 트위터 계정인 스태츠 앤드 인포에 따르면, 포스트시즌에서 첫 2이닝에 연속 이닝 만루 홈런을 친 팀은 보스턴이 처음이다. 정규리그를 포함해도 메이저리그 사상 5번째에 나 오지 않은 진기록이다. /노컷뉴스



보스턴은 화끈한 타격을 앞세워 휴스턴을 9대5로 누르고 원정 2연전을 1승1패로 마무리했다. 한편,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첫 경기에서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LA 다저스를 3대2로 꺾었다. 오스틴 라이일리의 날이었다. 1대2로 뒤진 4회말 동점 솔로포를 터뜨린 라이일리는 9회말 1사 2루에서 끝내기 안타를 때려 승부를 결정했다. /노컷뉴스


대한적십자사



정기후원 참여하기
후원 및 참여문의
☎ 1577-8179

적십자회비, 가장 어려운 이웃에게 가장 투명하게 사용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633만 명

적십자회원 3,418,517명 참여
봉사원 128,621명 참여
헌혈자 2,613,901명 참여
RCY 173,154명 참여

도움을 받은 사람들
160만 명

국내 이재민구호 41,549명 지원
희망풍차(4대 취약계층) 300,403명 지원
국제 재건복구사업 약 19억 원 지원
해외재난 긴급구호 약 8.4억 원 지원
국민안전교육 391,610명 지원
RCY활동 733,765명 지원
공공의료 135,383명 진료



홍보대사 소유진

문의 : 063)280-5821~2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 함께하는 사람들과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적십자회비와 인도주의 활동 기부금을 통한 활동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